

# ‘자리-파벌다툼’ 광주시의회 일단 ‘봉합’

### 비주류측 17일 본회의 참석 정상화...파행 불씨는 여전히 주류-비주류 감정 골 깊어 의사일정 등 충돌 계속될 듯

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와 세 다툼으로 파행을 빚어온 제8대 광주시의회가 이번 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동찬 의장을 중심으로 한 주류 측과 반재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측 의원들 간 감정적 골이 여전히 깊어 향후 의사일정 과정 중에 의견 충돌이 잦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여곡절 끝 ‘봉합’** 조짐=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반발해 온 비주류 측이 ‘의회 우선 정상화’를 원칙으로 오는 17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시의회 파행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측 한 의원은 “민선 7기 조직개편안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의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아무 조건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의회 파행에 따른 여론의 압박과 내부 자성론이 커지면서 김 의장이 비주류 측과 협상을 이어갔고, 주류 측이 주요 보직에 후보를 내지 않은 방법으로 양측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시장과 교육감 주요 업무보고, 실·국별 상임위 업무보고, 운영위원장 선출, 예결·윤리위원 선임 등 지난 5일간 의회 파행으로 미뤄졌던 주요 의사일

정이 정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9일 개원한 이래 4차례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정화와 산화를 되풀이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비주류 측은 그동안 의장을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의 승자독식 구조와 임시직 교체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반발해왔다. 주류 측 의원들이 ‘스크림’을 짜고 부의장 및 주요 상임위 자리를 배분한데 따른 반발이었다.

◇**파행 ‘불씨’**는 여전히=파행을 조기에 봉합하기 위해 김동찬 의장이 앞장서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게 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주류 측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석도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자신을 지지해온 의원들을 설득해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비주류 측에

양보해야 하지만 이마져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주당 일당 독점 의회에서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안배해왔다. 하지만, 이번 8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정치에 첫발을 내딛는 정치 초년생과 초선 의원들 모두 자리 욕심이 상당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김 의장이 주류 측 의원을 어떻게 설득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시의회 파행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주류측에서도)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모두 내가 책임질 문제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회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최대한 설득해 양측이 서로 협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광산구 민선 7기 첫 정기 인사 관심

### 4급 1명·5급 11명 승진 요인 김삼호 구청장 인사 방침 주목

광주 광산구가 민선 7기 첫 정기 인사를 앞두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요인이 대거 발생하면서 김삼호 구청장의 인사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에선 베이비 세대인 1959년생들이 상당수 퇴직함에 따라 4급 1명을 비롯해 5급 11명 등 간부공무원의 대규모 승진이 요인이 발생했다.

이 같이 민선 7기 첫 인사발령을 앞두고 간부공무원의 승진 대상자가 많아지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도 꼬리를 물고 있다. 실제로 4급 승진대상자의 경우 능력을 감안한 발탁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 속에 일부 인사 낙점설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직과 공업직의 5급 승진은 근평 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시실직은 3년 이상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한 특정

직렬에 안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행정직 5급 승진의 경우는 50%는 근평을 반영하고 50%는 경력과 나이를 감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후순위를 받는 공직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A모(6급)씨는 “각 부서에 사무관급 승진예정 인원도 포진돼 있다 보니 역측이 분분하다”며 “민선7기 첫 인사발령인 만큼 공직 내부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복잡했던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고, 직렬별로 소외받지 않도록 안배를 했다”며 “연공서열과 발탁인사를 조화시켜 승진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의 경우 지난 11월 인사예고를 시작으로 12-13일 승진대상자에 대한 상호평가를 마쳤으며 오는 19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진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남도 농촌체험여행 박람회 개막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재 도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성일 도의원 등이 지난 13일 오후 여수 해양공원 주무대에서 열린 제1회 전라남도 농촌체험여행 박람회에 참석해 시군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 광주시 정무특보 김이강 광주혁신위 비서실장 임명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민선 7기 초대 정무특보로 김이강(사진) 광주혁신위원회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김 특보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으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 이 시장에게 발탁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문재인 후보의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상황부실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으로 일했다.

정무특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시의회

와 시민사회, 언론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전문임기제 4급 상당으로,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단란체장인 시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518m 타워’ 일방 추진 않기로”

### 이용섭 시장 공약사항 재거론 가능성 배제 못해

광주시가 15일 논란이 되고 있는 ‘518m 빛의 타워’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성과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일단 현안에서 배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518m 빛의 타워’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인데다 인수위원회 성격의 광주혁신위원회가 제

안한 검토과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시는 “광주혁신위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향후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장단점이 논의되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결과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에서 먼저 논의가 된 뒤 ‘518m 빛의 타워’를 설립하는 의견이 우세하면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광주혁신위는 ‘518 빛의 타워’ 건립을

장기검토과제로 시에 제안한 바 있다. 부지는 중앙공원, 구도심 학교부지, 개발 예정 신도심 등으로 하고 재원은 민자유치로 조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에 뛰어난 양향자 최고위원의 공약으로, 지난 200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당시 구도심 일원에 518m 높이의 민주인권탑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온 뒤 13년만에 다시 논란이 됐다.

혁신위 내부에서는 타워 내부 배치, 조명시설 등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18m 빛의 타워’가 권위적인 상징물로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동떨어지고 재원 조달, 건축부지 마련 등의 한계가 있어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518m짜리 타워를 세워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광자원이 부족한 광주의 현실에서 외부인들을 유인할만한 상징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518m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민자 유치로 전문학적인 투입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현재까지의 관련 논의는 광장히 추상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8선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 전남시·군의장협회장 추대

‘전국 최다’ 8선 경력의 강필구(67) 영광군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제8대 전반기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추대됐다.

강 의장은 이날 전남 22개 시·군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회장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돼 회장에 선출됐

다.

강 회장은 앞서 제7대 후반기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역임했다.

부회장에는 김성희(여·60·3선) 광양시의회 의장과 이순이(여·66·3선) 해남군의회 의장이 각각 선임됐다. 부회장은 모두 3선의 여성 의원이다.

이날 임원진 구성을 마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시·군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공동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옛. 밝은광주안과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 신세계안과

#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